

서면·스나이더 등 학자·문인들 '천년의 끝에 선 불교' 주제 샌프란시스코 선원서 매달 강연

출판계도 '불교와 미래' 등 밀레니엄 관련서 속속 펴내



◇로버트 서먼 ◇페터 매트슨 ◇골드스타인



◇조인나 매시 ◇피터 매트슨 ◇수라 다스

美 불교계 새로운 천년 '준비'

21세기는 어떠한 세기가 될까. 2000년을 코앞에 둔 요즘 밀레니엄이란 말이 유행이다. 밀레니엄이란 '천년기' '황금시대'란 뜻. 최근 美 불교계는 대표적 지식인들이 앞장서서 새로운 천년을 맞이할 준비로 분주하다. 첨단화 정보화 사회가 도래할 미지의 세계를 불교적 혜안으로 바라보고 불교가 어떠한 역할을 담당할 지를 분석하고 만전을 기하는 것이다.

을 앞둔 인간이 느끼는 기대와 두려움의 원인을 밝히고 불교적 대안을 찾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강연회가 끝나는 12월에는 모든 발제자들이 참여하는 학술회의도 열릴 예정이다. 피수원장은 "20세기가 폭력과 혼란의 시대였다면 새로운 세기는 전혀 달라질 것이므로 고대(古來)의 지혜를 일깨워 동양의 이상(理想)을 서양에서 실현시키겠다"고 말한다.

다사상으로 화합과 협력을 유도해 국단을 배제해야 한다"며 불교적 가치체계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앞으로 조안나 매시교수(버클리대)가 '인드라마 속에서 깨닫기', 조셉 골드스타인이 '통찰과 활동', 페터 매트슨은 '타인과 친밀성을 인정하는 것' 등을 주제로 각각 발표할 예정이다.



부다피아 사이버 기행 인권·사회개혁 사이트

국제참여불교연합등 세계평화 '지원' 불교의 비폭력·불살생 가르침 전해

평화, 인권, 사회개혁 등 인류가 당면한 문제에 대해 인터넷을 통해 능동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사이트가 있다. 국제참여불교연합(International Network Engaged Buddhism) 사이트는 아시아 불교신도들의 적극적인 사회 참여와 연대를 이끌기 위해 1989년 결성된 단체. 마하 고사나다스님(캄보디아)의 '지회퇴치운동' 미안마와 태국 등의 '대안교육운동' 등 아시아에서 자생하고 있는 평화, 인권운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18~19세기 한국불교사 연구"

美 버클리대 박사학위 취득 12년만에 귀국한 진월스님



"연구성과가 상대적으로 미흡한 18~19세기의 한국불교사를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한편, 후진양성에 매진하고 싶습니다." 86년 미국 유학길에 오른 뒤, 올 캘리포니아 버클리대에서 철학박사학위를 취득하고 12년만에 귀국한 진월스님. 박사논문 '초의 의순(意恂)-조선후기 예술가이자 무예선사'에서 엿볼 수 있듯이 스님은 앞으로 "조선후기 원흥무예했던 선사들의 불교사상을 연구, 오늘에 재현하고 싶다"고 귀국 소감을 피력했다.

스님은 박사논문에서 "다성(茶聖)으로 잘 알려져 있는 초의선사는 당시의 문화와 지성사를 주도했던 중요 인물이었다"며 "조선후기의 포괄적이고 초월적인 불교사상을 계속 연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스님이 세계종교연합운동인 UR(United Religion)운동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것도 "원흥 무예한 불교사상의 실천"이라는 생각 때문이다.

김정은 기자(jekim@buddhapia.com)

학술단신

한국학 국제학술회의

한국학진흥위원회는 제10회 한국학 국제학술회의를 22일~23일 정신문화연구원 대강당에서 개최한다. 7개국 23명의 관련 연구자가 참석하는 가운데 열리는 이번 국제학술회의 불교학 분과발표는 로버트 버스웰 교수(캘리포니아주립대)의 '한국학 불교학의 영역에서의 재문제와 도전-원형을 중심으로'가 있을 예정이다. (0342)709-9552

'한국선사상연구' 영문판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원장 권기중)은 최근 11편의 선(禪)관련 학술 논문을 수록한 'SON THOUGHT IN KOREAN BUDDHISM'을 발행했다. 84년 발행된 '한국선사상연구'의 영문판으로, 한국 선사상의 세계화를 위해 편찬한 내용으로 보완했다. (02)260-3500

삼학원 수강생 모집

불교원전전문학원 삼학원(원장 지관스님)은 98년도 여름학기 수강생을 모집한다. 강좌는 선전강독, 한국불교근석학 등 △불교원전 연구과정과 팔리어, 범어, 티베트 등 △불교역사학수 과정이 개설돼 있다. 강의는 25일부터 8월 29일까지. (02)765-9602

"부처님 최초설법 여성성불 제시"

원영스님 '불교에서의 여성관' 발표

"여인 성불에 대한 논쟁은 경전의 성립시기와 함께 변화한 것이다. 여성성불사상은 부처님의 최초 설법에서 제시됐다." 원영스님(성철선사상연구원 부원장)은 13일~14일 해인사 흥재암에서 열린 한국여성학회(회장 조은) 14차 워크숍 '불교에서의 여성관-여인 성불사상을 중심으로'에서 이 같이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스님은 "경전속에 나타난 여성성불론 고찰을 통해 여성성불사상이 부처 불교에서 왜곡되고 대승불교에서 다시 부처님의 원래 가르침대로 분명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불교가 '여성은 성불할 수 없다'고 하여 남녀차별사상을 갖고 있다는 인식은 잘못된 것"이라고 역설했다.



부처님께서 여인의 출가 조건으로 팔정법(八正道)을 두었다 하더라도 당시 인도 여성의 사회적 위치를 고려할 때, 부처님 재세시 여인의 출가를 허용했다는 그 사실 자체를 중요하게 보아야 한다는 것. 스님은 "여성이 성불할 수 없는 다섯 가지의 장애(五障說)를 말한 율장은 여성 천시사상이 강했던 부파불교 시대의 산물"이라며 "이후 정토계 경전과 융수 이전의 초기 대승불교시대에는 번녀성남(嬖女成男)을 말하며 '승만경' 등 대승불교 후기 경전에는 여신성불(女身成佛)을 설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마경'에서는 대승 공(空)사상의 입장에서 불 때 남녀의 상(相)이란 분별이 없고, 무생인을 얻고 보면 남녀의 분별이 없어진다고 설하고 있다. 또 여래장사상이 성립된 불교의 중기, 3세기 경 '승만경'에는 이에 근거하여 여신으로서도 즉시 성불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는 것. 이밖에 여래장계의 경전인 '열반경'에서는 결코 성불할 수 없는 한 무리의 사람들, 즉 일체제(一體提)를 설하고 있는데 그 속에 여인은 포함되지 않는다. 원영스님은 "사회적 영향을 받은 경전의 내용과는 달리 불교는 본래 모든 사람이 하하고 한다면 해탈을 얻을 수 있다는 평등사상을 가르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정은 기자

장가안가길 잘했네 베스트셀러 「저거는 맨날 고기 육고...」의 저자. 우학 스님의 새 수필집. "장가 안가길 잘했네!" 마음을 밝혀주는 새 법구경과 함께 더욱 큰 감동을 줍니다. (전 2권 각권 6,500원) -도서출판 좋은인연- 053)475-3707

동의보감3권 가정종합대학3권 IMF 긴급자금조달 특별할인판매. 5만여 내용이 수록되어 있는 사회생활의 대총합. 1. 동의보감(상) 2. 동의보감(중) 3. 동의보감(하) 4. 가정종합대학(상) 5. 가정종합대학(중) 6. 가정종합대학(하)

신비한 우주 에너지(빛) 발생장치, 명상용 수정 피라미트 히란야! 피라미트 모자. 한국 피라미트 히란야 체질개선 연구회 부설 문덕출판사.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1가 305-1 보라B/D 303호 TEL. 792-0960, 0966